

## 합격이라는 결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정 후 영

-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3년 재학 중
- 2021년도 입법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 2021년도 5급 공채 재경직 수석합격

###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2021년 입법고시와 5급 공채 재경직에 최종합격한 서울대 경제학부 정후영입니다. 합격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예상치 못하게 수석합격을 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 수기를 작성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저 역시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기에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수험생분들께 하나의 참고사항으로써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 Ⅱ. 수험기간 및 공부 과정

저는 2020년 1월에 진입하여 2021년 7월까지 약 1년 6개월의 수험기간을 보냈습니다. 2020년에는 행정고시에만 응시하여 제2차시험까지 응시하였고 2021년에는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모두 도전해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제1차시험 전까지는 집 근처 독서실과 집에서 공부하였고 2021년 제1차시험 후에는 학원에 등록하여 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3월~8월에는 인

강으로 진도를 나가는 데 주력했습니다. 인강을 빠르게 들어서 제2차시험 전까지 전 과목을 1순환까지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암기나 답안작성보다는 강의를 수강하고 개념을 이해하는 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2020년 9월~2021년 2월에는 암기와 문제 풀이에 주력했습니다. 행정법은 핸드북과 기출 사례연습을 반복해서 보면서 일반론을 확실히 암기하였습니다. 경제학과 재정학은 강사저 문제집과 기출문제집을 일정 분량을 정해서 꾸준히 풀었습니다. 통계학은 강의를 수강하고 강의 복습과 기출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강의 수강은 최소화하고 자습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개념 위주인 예비, 1순환에서 답안작성 위주인 2,3순환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암기와 문제풀이를 충실히 한 덕분에 이후 3순환을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2021년 3월~7월에는 답안작성에 주력했습니다. 3순환을 실강으로 수강하고 학원에서 매일 모의고사를 응시해서 하루에 보통 100점 정도의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매일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 다음 날 시험 범위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 III. 과목별 공부 방법

#### 1. 제1차시험 : 평균 90점

##### (1) 언어논리(95점)

언어논리는 기출문제 풀이 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행시 기출 10년치를 두 번씩 풀고 틀린 문제는 다시 푸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2021년에는 기출이 익숙해져서 모강을 구해서 풀어 보았

으나 기출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느껴져서 2월 중순부터는 모강을 풀지 않고 다시 행시 기출과 입시 최근 3~4년 기출을 풀었습니다. 또한 2020년 행시에서 논리문제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서 PSAT, 리트 등 각종 시험의 논리 문제만 모아놓은 문제집을 사서 연습했습니다. 저는 행정고시 언어논리의 경우 대부분 지문을 거의 끝까지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출을 여러 번 풀다보니 지문을 읽으면서 선지화 될만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였고 그런 부분은 밑줄이나 동그라미, 세모 등 표시를 하면서 읽고 문제를 풀 때 돌아와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입법고시 언어논리는 행정고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문의 길이가 압도적으로 길어서 다 읽고 푸는 것이 불가능했고 특히 올해는 난해한 독해 지문과 어려운 논리 문제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작년까지는 오히려 입시 언어논리가 행시보다 쉽다는 평도 많았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확실히 긴 지문을 빠르게 발췌독하는 연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험서 :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논리학(김우진)

##### (2) 자료해석(85점)

자료해석은 처음 진입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입니다. 처음 진입할 때 2016년 기출을 풀고 50점대의 점수에 충격을 받아서 곧바로 윤진원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문제 접근방법과 여러 계산 스킬 등을 배울 수 있었고 이후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기출문제를 풀면서 체화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강의 수강과 복습, 행시 기출

10년치 풀이, 민경채 5개년과 입법고시 5개년 정도를 풀었습니다. 자료해석이 약했기 때문에 자료해석은 매일 문제를 풀었고 비타민도 풀면서 계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21년에는 모강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자료해석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월부터는 매일 한 회씩 풀었고 2월 말부터는 다시 기출 풀이를 했습니다. 행시 자료해석은 계산이 심각하게 복잡한 경우는 많이 없어서 선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함정이나 표를 빠르게 해석하는 연습을 주로 했습니다. 입시 자료해석은 계산이 훨씬 복잡하고 시간의 압박이 커서 웬만한 계산은 하되 너무 심한 것은 빠르게 넘기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수험서: 5급공채, 입법고시, 민경채 기출문제, 강사 모의고사

### (3) 상황판단(90점)

상황판단은 별도로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았고 기출과 모강 문제 풀이 중심으로 학습했습니다. 2020년에는 행시 기출 10년치를 두 번씩 풀었고 2021년에는 모강을 주로 풀고 시험 직전에는 다시 기출을 풀었습니다. 법조문에서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모든 선지의 정오를 조문과 비교하면서 확인했습니다. 퀴즈는 문제를 읽고 풀이 방법이 전혀 생각나지 않거나 생각이 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들은 표시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보통 앞의 20문제를 40분 내에, 전체를 80분 내에 다 보고 마킹을 먼저 한 뒤 표시하고 넘어간 문제들을 남은 시간 동안 보았습니다. 행시 상황판단은 보통 4~6문제 정도를 넘기고 최종적으로 2~4문제 정도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서: 5급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문제, 강사 모의고사

### (4) 헌법(80점)

헌법은 처음 진입하면서 금동흙 선생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이후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여러 번 복습하면서 기본을 꼼꼼하게 공부했고 이 덕분에 2021년에는 헌법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강의는 듣지 않고 OX문제집과 진도별 모의고사를 풀면서 모르는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했고 최신 판례도 시험 직전에 보충했습니다. 헌법이 60점만 넘으면 되긴 하지만 막상 시험장에서는 헛갈리는 게 많으면 이후 언어논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험서: 5급 공채 헌법(금동흙), 5급 공채 헌법 기출문제집(금동흙), 핵지총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OX(금동흙)

## 2. 제2차시험 : 평균 77.25점

### (1) 경제학(75.66점)

경제학은 강의 수강과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예비순환과 1순환까지는 개념 이해와 수업 내용 복습에 집중했고 2순환 수강 후 다양한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하반기에 step2, 기출문제, 연습책을 꾸준히 풀었는데 하루에 보통 20문제 정도씩 풀었고 처음 풀 때는 해설을 보면서 풀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제학은 정확한 답 도출과 그래프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도 정확한 답이 도출될 때까지 풀었고 그래프는 해설에 있는 그래프를 꼭 한 번씩 따라 그려 보았습니다.

2021년에는 3순환을 수강하면서 step3와 3순환 모의고사를 주로 풀었습니다. 3순환을 수강할 때는 예습형 모의고사에 대비하여 다음 날 시험 범위의 step3 문제를 미리 풀고 수업을 들으면서 복습했습니다. 3순환 종강 후 행시 제2차시험 전까지 김진옥 선생님과 황중휴 선생님의 3순환 모의고사를 각각 3년치 정도씩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연습책과 대부분의 3순환 모의고사는 한 번씩밖에 풀지 못했는데 한 번 풀어서는 거의 기억에 남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씩은 풀 수 있도록 계획을 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행시 2차시험 직전 마무리를 step2로 하였는데 올해처럼 경제학이 어렵게 나온다면 step3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입법고시 경제학에서는 답을 틀리는 실수가 있어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경제학은 확실히 정답을 맞혔는지에 따라 점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히 읽고 검토를 습관적으로 해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제경제학은 2020년에는 선택과목이어서 1순환을 수강했으나 이후 복습을 전혀 하지 않아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경제학 3순환 개강 전에 김진옥 선생님의 2순환을 인강으로 수강했습니다. 2순환 교재인 국제경제학 실전문제집을 3순환 기간에 두 번 정도 복습해서 경제학에 출제될 수도 있는 국제경제학의 필수적인 내용에 대해 숙지했습니다.

·수험서 : 미시경제학 실전문제집 step1,2,3(김진옥), 거시경제학 실전문제집 step1,2,3(김진옥), 경제학 연습책(황중

휴), 국제경제학 실전문제집(김진옥), 3순환 모의고사(김진옥, 황중휴)

## (2) 행정법(71.33점)

행정법은 일반론의 확실한 암기와 논리적 전개, 풍부한 사안 포섭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공부를 시작한 2020년에는 암기에 중점을 두었고 2021년 3순환 기간에는 논리적 목차 구성과 사안 포섭 연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격적인 암기는 1순환부터 시작했고 핸드북과 사례연습 교재를 암기에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북을 통으로 암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서 키워드에 빈칸을 뚫고 이를 채우는 방식으로 2회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키워드는 암기가 되었으나 답안에 현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선균 선생님의 사례연습 교재를 노트북으로 타이핑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답안을 따라 쓰는 것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지만 사례연습을 두 번 정도 타이핑 하는 과정에서 기출에서 자주 출제되는 논점들을 통문장으로 대부분 외울 수 있었고 답안 구성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핸드북도 백지 암기를 손으로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노트북을 이용해서 핸드북의 논점과 큰 목차를 미리 써놓고 세부 내용을 암기해서 채우는 방식으로 21년 1차 시험 전까지 일반론 암기를 거의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류준세 선생님의 3순환을 실강으로 수강했습니다. 류준세 선생님의 강의는 처음이어서 방대한 양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지만 이 기간에 행정법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채우고 답안을 풍부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 모의고사를 보

면서 참조조문과 법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예시답안을 참고하여 사안 포섭을 구체적으로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관례 문구를 정확하게 현출하기 위해 두문자를 적극 활용해서 다소 긴 관례 문구도 그대로 암기하였습니다.

올해 행정고시 행정법에서 기대 이상의 점수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법조문을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1문의 (1)에서는 참조조문의 구체적인 조항과 최신판례를 활용하여 부분인허가의 가능성을 포섭하였고 제3문의 (2)에서도 참조조문을 활용해서 사안포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2문은 참조조문도 없고 25점 통배점이라서 다소 당황하였는데 우선 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을 짚나열한 뒤 사안에서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체크했습니다. 특히 법령위반여부와 사익보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법조항이 필요한데 참조조문이 없어서 시험장 법전을 활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었지만 경직법은 일반법이기에 때문에 개별법을 우선적으로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조문이 보일 때까지 빠르게 법전을 훑었고 다행히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의무를 재량으로 규정한 조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제44조, 제47조). 이 조문과 경직법 제2조를 활용해서 작위의무와 사익보호성을 논의하였고 나머지 모든 요건도 짧게라도 전부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장에서 법전을 찾아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론을 확실히 암기해서 개념, 학판검을 빠르게

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답안작성과 목차잡는 연습을 충분히 해서 시험장에서 미리 목차를 잡기보다는 문제를 보자마자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답안 연습을 할 때 참조조문은 물론이고 법전을 활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서: 행정법 엑기스(정선균), 핸드북(정선균), 행정법 판례연습, 사례연습(정선균), 3순환 모의고사(류준세, 정선균)

### (3) 행정학(57점)

행정학은 제가 가장 소홀히 한 과목이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가장 불안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저의 공부 방법보다는 제가 느낀 아쉬운 점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박경호 선생님의 예비순환과 1순환을 수강해서 기본적인 개념 학습을 하였으나 이후 하반기에 행정학 복습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든 생각은 예비, 1순환 수강 후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강의의 필기 노트를 활용해서 개념 암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행정학도 좋은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개념이나 이론, 학자, 사례 등 암기가 분명히 필요한데 저는 3순환 기간에 암기를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암기가 불완전했습니다.

답안작성에 있어서는 제시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입법고시 제1문과 같이 제시문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최대한 답안을 작성하면서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했고 제3문은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이었지만 제시문을 힌트 삼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서술했습니다.



올해 행정고시 행정학은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학이 과목 특성상 범위가 가장 불명확하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의타에 대한 우려로 양을 늘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무작정 시험에 임박하여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수험서: 재미있는 행정학(박경호), 3순환 모의고사 및 논문자료(박경호)

#### (4) 재정학(93.66점)

재정학은 경제학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재정학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순환을 들으면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이후에는 문제 풀이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의 zip 2판을 두 번, 연습책을 한 번씩 풀었고 3순환 기간에는 강의를 따로 듣지 않고 모의고사의 zip 3판과 김진욱 선생님, 황중휴 선생님의 3순환 모의고사를 주로 풀었습니다.

재정학은 작년 행시 3문과 같이 수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올해 입시 제3문과 같이 약술형 문제가 출제되기도 해서 두 방향 모두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과서를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약술형도 문제집으로 대비했는데 재정학은 강사저 문제집에도 약술형 문제가 꽤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시간이 없다면 문제집 한두 권만 여러 번 반복해도 대비가 가능했습니다. 재정학은 답안을 작성할 때에도 경제학보다는 개념이나 가정, 의의와 한계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노력을 하는 게 고득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입시 재정학은 평소에 비해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었으나 네 문제가 출제되어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숫자로 답을 도출해야 하는 문제를 먼저 확실하게 풀어서 시간 부족으로 계산 실수를 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답안도 그래프를 그려야 하는 문제들 먼저 작성하고 약술형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답안을 작성해서 시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수험서: 재정학 모의고사의 zip(김진욱), 재정학 연습책(황중휴), 3순환 모의고사(김진욱, 황중휴)

#### (5) 통계학(50점)

통계학은 2020년 하반기에 1순환 수강으로 시작했습니다. 베이스가 전혀 없었는데 1순환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았고 2021년 1월에는 2순환을 수강했습니다. 저는 올해 4월까지도 통계학에 감을 잡지 못해서 진지하게 과락을 걱정했습니다. 4월 말~5월 초에 행정법 3순환과 행정학 3순환 사이에 약 열흘 정도 시간이 생겼고, 이 기간에 통계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작년 3순환을 인강으로 수강하고 3순환 강의 문제와 모의고사를 2~3번씩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풀이 실력이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또한 6월에는 올해 통계학 3순환을 실강으로 수강해서 매일 새로운 문제를 풀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부족해서 수리통계학 교과서는 전혀 보지 못했는데 2년치 3순환 모의고사와 실전문제만으로도 꽤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3순환 문제를 활용하시기를 추천드

립니다. 그리고 문제 수를 많이 늘리지 못하더라도 문제를 한 번만 푸는 것보다는 두 번 이상 풀어서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통계학은 크게 수리통계학, 추·검정, 분산분석과 회귀분석 이렇게 나뉘는데 물론 수리통계학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추·검정이나 분산분석, 회귀분석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검정은 통계량과 검정 방법을 암기해서 풀었고 회귀분석은 3순환 모의고사와 실전문제를 통해 어려운 문제에 대비했습니다. 수리통계학도 암기해야 할 분포와 특성치는 암기하고 문제 풀이를 반복해서 연습해서 정확한 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통계학은 답을 맞히면 점수를 거의 획득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한 문제도 정확히 계산해서 답을 도출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행정고시 제3문과 같이 증명을 요구하거나 복잡한 식전개가 필요한 문제가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리통계학 초반에 나오는 기본적인 계산공식들(부분적분, 치환적분, 이항정리, 맥로린급수 등)을 단순히 공식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식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공식을 활용하려면 식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다양한 식 전개를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수험서: 남몰래 선택하는 통계학(남선일), 통계학의 제문제(메가고시 연구소), 3순환 모의고사 및 강의자료(남선일, 주희민)

#### IV. 공부시간 및 생활습관

2020년 1월~2021년 2월까지의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해서 보통 8시~8시 30분에 기상해서 9시~9시 30분에 독서실에 도착했고 밤 11시에 귀가했습니다. 귀가 후에는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수면시간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하루 평균 9시간 정도 공부했고 쉬는 날은 따로 정해놓지 않고 약속이 있는 날 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021년 1차 시험 후에는 학원 자습실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보통 6시쯤 기상해서 7시 30분까지 학원에 도착하였고 11시에 귀가했습니다. 취침 시간은 마찬가지로 12시였고 공부 시간은 평균 11~12시간 정도였습니다. 일요일은 9시까지 학원에 도착하고 저녁 5시 30분에 귀가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 V. 나가며

짧다면 짧은 수험생활이었지만 3순환 기간 막바지에는 체력적 한계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떨어지면 1년을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처음 진입할 때의 결심, 최선을 다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외롭고 힘든 고시공부지만 고된 노력 끝에 합격이라는 결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항상 힘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합격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낮은 자세로 배우고 성장하며 공익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